

## 근세 동아시아의 鍼術인 鷄足에 대하여

順天堂大學 醫學部 醫史學研究室 研究員  
吉田和裕\*

### A Study on the Acupuncture Technique of Gyejok in Modern East Asia

Kazuhiro Yoshida\*

Researcher at Dept. of Medical History, Faculty of Medicine, Juntendo University

**Objectives** : Donguibogam Chingupyun has a sort of acupuncture technic in Josun called Gyejokchimbub. This Gyejok refers to the habgogja of Ling shu . guanzhen. This was conveyed to Japan as Shinkyugokuhitsuto's Betsutsuto but it is unclear as to how this is used today.

**Methods** : Medical texts such as Donguibogam, Huangdineijing Lingshu, Yixuegangmu, Shinkyugokuhitsuto, Sugiyamamakototsutoryu, and Shinkyusuyo were studied for this research.

**Results** : Gyejok acupuncture is conveyed to Japan as Shinkyugokuhitsuto's Betsutsuto but it is unclear as to how this is being used. What is similar to this technic is the Sanhoshujutsuho in hand technic's part and Sanhohariden in Juhachijutsu's Kuden which are shown in the chapter five of Book of Hyo. Moreover, this Sanho is Lingshu . Guanzhen's Qici. This was continued as Sugiyamamakototsutoryu's Sanhoshujutsuho, but sansin in needle technic is similar to Gyejog, and it was branched out into Sanhoshujutsuho that is orally transmitted from Sanhoshiyuji as seen in the same book, Juhachijutsu's principal treatment.

**Conclusions** : Habgogja is a 'Gyejog Tsuto' originating from Gyejog technic, and Qici is Sanho originating from Santoge. They developed into Sanhohariden from Sanhoshujutsuho. This tells us how Gyejog acupuncture technic has affected East Asia.

**Key words**: 鷄足(Gyejog), 靈樞(Lingshu), 東醫寶鑑(Donguibogam), 鍼灸極秘傳(Shinkyugokuhitsuto), 杉山眞傳流(Sugiyamamakototsutoryu)

\* Corresponding author : Kazuhiro Yoshida.

dept. of Medical History, Faculty of Medicine, Juntendo University.

Tel : +81-03-3813-3111, E-mail : yo-sita@juntendo.ac.jp

Received(Aug 3, 2018), Revised(Aug 9, 2018), Accepted(Aug 9, 2018)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序論

鷄足은 朝鮮시대 의학에서 鷄足鍼法으로 『東醫寶鑑鍼灸篇』에 기재되어 朝鮮時代에 침구 치료에 활용되고 있었다. 중국의학에서는 이러한 鍼灸刺法을 鷄足이라하며 五臟의 병증 치료에 合谷刺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日本의 鍼灸에 있어서 鷄足은 『鍼灸極秘傳』의 「別傳」으로 전승되었는데, 에도시기에 융성했던 침구 유파로는 『杉山眞傳流』 「表의 卷第五」 手術의 部 가운데 「三法手術의 法」으로 계승되었다. 나아가 十八術의 口傳 가운데 「三法鍼의 傳」으로 발전하였다. 이 「三法」은 중국 의학의 刺法으로 十二經脈에 相應하는 十二刺의 하나인 「齊刺」였다. 이들은 독특한 手技나 刺法이었으나 에도시대부터 임상적인 가치를 서서히 잃어버렸다. 현재 일본에서는 合谷刺, 齊刺 등의 용어로 남아 있는 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새롭게 근세의 鷄足鍼法에 대하여 동아시아 전통 의학의 측면에서 그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本論

鷄足은 어느 정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평가되고 있는 鍼法이다. 그러나 鷄足鍼法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파생되고 각 전통 의학으로 파급되어 발전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의 鷄足 鍼術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研究方法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에 소장된 明나라 萬曆 41年 癸丑訓鍊都監活字本の 『東醫寶鑑』과 日本 內經醫學會가 소장하고 있는 明나라 때 간행된 無名氏本の 『新刊黃帝內經靈樞』(內藤湖南이 舊藏)와 국립공문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紅葉山文庫本の 『醫學綱目』과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白井文庫本の 『鍼灸極秘傳』과 재단법인 杉山檢校遺德顯彰會가 발행한 『杉山眞傳流』와 교토대학 富士川文庫가 소장하고 있는 『鍼灸樞要』등의 의서를 활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鷄足の 鍼術

‘鷄足’은 許浚(1537-1615, 號는 龜巖, 字는 淸源)이 저술한 『東醫寶鑑』(1613년, 25권)에 보인다. 본서는 조선 시대 의학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망라하였고 그 속에 전반적으로 道교 사상이 투영되어 있다. 구성은 內景篇 4권, 外形篇 4권, 雜病篇 11권, 湯液篇 3권, 鍼灸篇 1권으로 5編의 23권에 서문(上下) 2권을 합하면 25권이 된다<sup>1)</sup>. 본서의 鍼灸篇(23卷)에 朝鮮의 鍼灸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鷄足鍼法」의 항목으로 『靈樞』, 『醫學綱目』의 醫書を 인용하고 있다<sup>2)</sup>.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에 중국 의서가 83冊, 조선 의서가 3冊으로 총 86冊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靈樞經』과 『醫學綱目』(本朝人所撰)이 기재되어 있다<sup>3)</sup>.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鍼灸에 관한 중요 문헌으로서 漢代의 『靈樞』(9권, 81편)와 明나라 때의 樓英(1320-1389, 字는 全善, 號는 全價, 公爽은 별칭)의 『醫學綱目』(全40권, 1565년 간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鍼灸篇』에서 인용문으로 “『靈樞』에서 이르기 를 병이 중하면 鷄足の 방법을 취한다.”라고 한 것은 『靈樞·衛氣失常』에 나온다<sup>4)</sup>. 手技法으로 “그 방법은 바로 한 개의 침을 놓고, 좌우에 비스듬하게 두 개의 침을 놓아 마치 鷄足에 세 개의 발톱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은 『醫學綱目』 권27의 「肺大腸部喘」에 기재되어 있다<sup>5)</sup>. 이와 같이 병이 중할 때에는 鷄足の 방법을 취한다고 『靈樞』에 기록되어 있는데, 晉나라 때 皇甫謐(215-282, 字는 士安, 號는 玄晏)이 저술한 『鍼灸甲乙經』(全12권, 259年頃)<sup>6)</sup>,

- 1) 吉田和裕. Philological and Historical Research on Dong Eui Bo Gam at the Nanji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J.Med.Soc.Toho. 2012. 59(2). p.54.
- 2)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2392. : 「鷄足鍼法」靈樞云, 病重者, 鷄足取之. 其法正入一鍼, 左右斜入二鍼, 如鷄之足有三爪也.<綱目>
- 3)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50. : 「歷代醫方」
-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55. : 「衛氣失常」重者, 雞足取之.
- 5) 樓英. 醫學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606. : 「肺大腸部喘」鷄足取之者, 其法正入一鍼, 左右斜入二鍼, 如鷄之足有三爪也.
- 6) 皇甫謐. 鍼灸甲乙經校注(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567. : 「肝受病及衛氣留積發胃脇滿痛」重者, 雞足取之. 診視其脉大而強急及絕不至者, 腹皮絞甚者, 不可刺也.

明代의 朱橚(1361-1525) 등이撰한『普濟方』(426卷, 1390年)<sup>7)</sup>, 明나라 때 汪機(1463-1539, 字는 省之, 別號는 石山居)가 지은『鍼灸問對』(3卷, 1530年)<sup>8)</sup>, 明나라 때 張介賓(1563-1642, 字는 景岳이나 會卿, 別號는 通一子)이 지은『類經』(32卷, 1624年)에도 보인다. 金元 四大家의 한 사람인 張子和(1151-1228, 이름은 從正, 字는 子和, 號는 戴人)가 저술한『儒門事親』(卷15, 1244年)에서도 “『靈樞』 가운데의 鷄足法을 쓴다.”라고 하였고<sup>9)</sup>, 『類經』에는 鷄足은 “官鍼篇의 合谷刺를 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sup>10)</sup>. 이 合谷刺라는 것은 『靈樞官鍼』에서 “좌우에 雞足 모양으로 分肉의 사이에 刺鍼하여서 肌痺를 치료한다. 이것은 脾에 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sup>11)</sup>, 『鍼灸甲乙經』<sup>12)</sup>, 明나라 때의 吳崑(1551-1620, 字는 山甫이거나 鶴皋)이 지은『鍼方六集』(6권, 1618年)<sup>13)</sup>, 明나라 때의 楊繼洲(1522-1620, 字는 濟時)가 지은『鍼灸大成』(全10권, 1601年)<sup>14)</sup>, 『普濟方』<sup>15)</sup>, 『類經』<sup>16)</sup> 등에도 보인

다. 『類經』에서는 또한 “合谷刺는 서너 개가 모여 합해진 것이 마치 雞足과 같다.”라고도 하였다<sup>17)</sup>. 이를 종합해 보면 合谷刺가 곧 雞足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五臟 중 脾에 응하는 五刺의 하나로서 肌肉의 痺가 있을 때에 직접 分肉에 鍼을 놓았다가 皮下로 되돌리고, 다시 좌우에 비스듬하게 찌르는 방법이다. 즉 雞足은 한 개의 침을 사용하고 刺法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이를 合谷刺라고 한 것이다. 『東醫寶鑑·鍼灸篇』에서는 雞足처럼 세 개의 발톱이 있다고 하였는데 역시 한 개의 鍼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東醫寶鑑』의 「鷄足鍼法」에서는 『靈樞衛氣失常』을 인용하였고 『靈樞官鍼』을 인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조선의 독자적 침법으로서 새롭게 명칭을 雞足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合谷刺라는 것은 合谷의 경혈에 刺鍼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合谷穴은 別名이 虎口로 手陽明大腸經의 4번째 經穴인 原穴이며 손발의 四穴을 軀幹의 四部로 나누어 치료하는 四總穴의 하나로서 “面口의 질병은 合谷에 취한다.”고 하였다<sup>18)</sup>. 合은 聚이니, 모이는 것이고 교차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며<sup>19)</sup>, 谷에 대해서는 『素問氣穴論』에서 “肉의 大會를 谷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sup>20)</sup>. 즉 合谷이라는 것은 大肉이 交會하는 장소이니<sup>21)</sup> 곧 合谷刺는 分肉의 部分에 刺鍼하는 것을 의미한다. 合谷刺에서 合谷이 곧 肌肉의 틈새인 分肉이 되므로, 合谷이 刺法이나 經穴名에 모두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중국 침술의 合

7) 朱橚. 普濟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9. p.1994. : 「積聚門總論」 重者, 鷄足取之. 診視其脉大而弦急及絕不至者, 及腹皮急甚者, 當從陰引陽, 取穴於腹募, 不可刺也.  
8) 汪機. 鍼灸問對(欽定四庫全書醫家類33). 서울. 1995. 大星文化社. p.89. : 「卷中」 重者, 雞足取之. 診視其脉大而弦急及絕不至者, 及腹皮急甚者, 不可刺也.  
9) 張從正. 儒門事親校註.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392. : 「燥形臂麻不便」用靈樞中鷄足法.  
10) 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316. : 「衛氣失常皮肉氣血筋骨之刺」病之重者, 仍當雞足取之, 謂攢而刺之也. 即官鍼篇合谷刺之謂, 詳見前六.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3. : 「官鍼」 四曰合谷刺. 合谷刺者, 左右雞足, 鍼於分肉之間, 以取肌痺, 此脾之應也.  
12) 皇甫謐. 鍼灸甲乙經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p.939-940. : 「九鍼九變十二節五刺五邪」 四曰合谷刺, 或曰滯刺, 又曰豈刺. 合谷刺者, 左右雞足, 鍼於分肉之間, 以取肌痺, 此脾之應也.  
13) 吳崑. 鍼方六集校釋. 서울. 醫聖堂. 1993. p.232. : 「尊經集五刺五應鍼方」 左右雞足, 鍼於分肉之間者, 脾之應也.  
14) 楊繼洲. 鍼灸大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9. p.27. : 「五刺應五臟論」 四曰合谷刺者, 左右雞足, 鍼於分肉之間, 以取肌痺, 此脾之應也.  
15) 朱橚. 普濟方.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8 20 July];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res=803933&searchu=%E5%9B%9B%E6%9B%B0%E5%90%88> : 「鍼灸門刺節論」 四曰合谷刺, 左右雞足, 鍼於分肉之間, 以取肌痺, 此脾之應

也.  
16) 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292. : 「三刺淺深五刺五臟」 四曰合谷刺. 合谷刺者, 左右雞足, 鍼於分肉之間, 以取肌痺, 此脾之應也.  
17) 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292. : 「三刺淺深五刺五臟」 合谷刺者, 言三四攢合, 如雞足也. 邪在肉間, 其氣廣大, 非合刺不可. 脾主肌肉, 故取肌痺者, 所以應脾.  
18) 高武. 鍼灸聚英.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1. p.252. : 「四總穴歌」 面口, 合谷收.  
19) 楊甲三. 鍼灸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72. : 合指大肉.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03. : 「氣穴」 肉之大會爲谷.  
21) 楊甲三. 鍼灸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72. : 合谷是大肉的交會處.

谷刺와 다르게 조선 침술에서는 鷄足鍼法이라고 명명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 3. 『杉山眞傳流』의 관련 鍼術

일본에서는 에도시대 중기의 鍼醫檢校인 嶋浦和田一(생몰연대 미상, 益一로도 칭함)이 지은 『杉山眞傳流』(7冊 및 두루마리 2軸, 1690年)의 十八術의 口傳인 「三法鍼의 傳」에서는 “口傳에 가로되 가령 中腕의 혈자리에 刺鍼을 하고서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그 鍼을 피부 부위까지 끌어당겨 놓고, 끝부분을 먼저 왼쪽의 梁門을 향해서 찌르고 잠시 침을 비틀었다가 鍼을 다시 피부 부위까지 물리고, 다시 오른쪽의 梁門을 향해서 찌러서 앞의 방법처럼 행하고서 침을 뺀다.”라고 하였다<sup>22)</sup>. 梁門穴은 腹部 정중선상의 任脈에서 외방으로 2寸 떨어진 胃經이 走行하는 經脈 상에 있다. 刺法에 대해서는 같은 책에서 그림을 보고 참고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手技法은 내용 상 한 개의 鍼을 써서 方向을 전환하는 것으로, 『靈樞·官鍼』의 合谷刺(鷄足), 『東醫寶鑑·鍼灸篇』의 「鷄足鍼法」 등의 방법과 거의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三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같은 책 十八術의 主治인 「三法主治」에서 “첫째는 齊刺라고 하니 齊는 가지런하게 함이다. 三刺는 한 개의 鍼으로 세 번 찌러 가지런하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三刺라고 한다. 내 문헌에서는 한 개의 鍼을 놓을 때마다 法대로 하므로 命하여 三法이라 한다.”라고 하였다<sup>23)</sup>. 手術의 部(十八術) 「三法手術의 法」에서는 “곧게 그 鍼을 놓고서 皮部까지 당겨놓았다가, 한 번은 앞에 찌르고 한 번은 뒤에 찌러서 한 개의 鍼으로 三鍼을 행한다... 깊이는 알맞게 한다.”라고

하였다<sup>24)</sup>. 즉 『杉山眞傳流』의 「三法主治」에서는 『靈樞·官鍼』의 齊刺(三刺)를 인용하였지만, 새롭게 三法鍼의 傳과 三法手術의 法을 자신의 유포에서 口傳하였다. 이 「表의 卷第五」는 管鍼術을 비롯하여 杉山流에서 사용한 手術의 깊은 뜻과 口傳을 체계화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口傳이 포함되어 있다. 口傳의 「三法鍼의 傳」의 刺法은 合谷刺나 鷄足鍼法과 유사한 면이 있는데, 「三法手術의 法」의 刺法은 좌우에 찌르는 것은 없고 진후에 찌르는 것이 있지만 皮部까지 끌어올린다는 점에서는 合谷刺(鷄足鍼)와 매우 비슷하다.

『杉山眞傳流』는 嶋浦檢校로부터 和田家에 전해진 流派의 격식을 기록한 책으로 「表之卷(5卷)」, 「中之卷(4卷)」, 「龍虎之卷(3卷)」, 「別傳三關之法」, 「皆傳之卷」, 「目錄卷」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龍虎之卷」에서는, “『東醫寶鑑』에서 말하기를 『靈樞』와 『內經』에 나오지 않으므로 奇穴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sup>25)</sup>. 이 「龍虎之卷」의 내용에는 卷一에서 204개 穴, 卷二에서 197개 穴, 卷三에서 119개 穴 등 총 520개 「奇穴」이 수록되어 있다<sup>26)</sup>. 本卷에는 引用書目에 32개의 의서가 열거되어 있는데, 중국 의서가 30冊이고 조선 의서가 2冊이다<sup>27)</sup>. 조선 의서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 의서로 『東醫寶鑑』과 조선의 침구서로 鍼醫 許任(1570-1647, 字는 奉卓)이 저술한 『鍼灸經驗方』(卷1, 1644年)이다. 같은 篇에 “東都行鍼, 御醫官, 嶋浦和田一惣檢校撰”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和田一은 적어도 『東醫寶鑑·鍼灸篇』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和田一은, 管鍼法을 세상에 알린 初代 關東지방의 檢校인 杉山和一(1610-1694, 이름은 養慶, 和一로

22) 杉山檢校. 杉山眞傳流. 東京. 杉山檢校遺德顯彰會. 2004. p.210. : 「表之五卷三法鍼之傳」 口傳ニ曰ク, 假令ハ中腕ノ穴ニ刺シ, 暫ク氣ヲ離シ, 其ノ針ヲ皮ノ部ニ引キ退ケ, 穂先ヲ先左ノ梁門ニ向ケテ刺シ, 暫ク針ヲ攪リ, 其鍼ヲ皮ノ部ニ退ケ, 右ノ梁門ニ向ケテ刺シ, 前ノ法ノ如ク行テ針ヲ去ル也. 刺法ハ図ヲ見テ參考.

23) 杉山檢校. 杉山眞傳流. 東京. 杉山檢校遺德顯彰會. 2004. p.156. : 「表之五卷三法主治」 一曰齊刺, 齊々, 三刺以一鍼, 三刺齊, 故曰三刺, 予門每一鍼與法故命曰三法內經曰ク, 寒氣小深者, 甲乙作寒熱, 寒氣々痺也, 寒氣入經謂痺之意也, 痛在皮膚間, 三刺而已, 又曰痛在傍者皆取之.

24) 杉山檢校. 杉山眞傳流. 東京. 杉山檢校遺德顯彰會. 2004. p.148. : 「表之五卷三法手術之法」 直入其鍼, 引退皮部, 一刺前, 一刺後, 一鍼行三鍼. 靈樞曰, 齊刺直入一, 傍入二, 或曰三刺, 淺深可隨宜.

25) 杉山檢校. 杉山眞傳流. 東京. 杉山檢校遺德顯彰會. 2004. p.665. : 「龍虎之卷第一」 東醫寶鑑曰, 不出於靈樞內經, 故謂之奇穴.

26) 杉山檢校. 杉山眞傳流. 東京. 杉山檢校遺德顯彰會. 2004. pp.667-792. : 「龍虎之卷」

27) 杉山檢校. 杉山眞傳流. 東京. 杉山檢校遺德顯彰會. 2004. p.665. : 「龍虎之卷第一引用書目」

통칭)이 開祖인 杉山流의 關東지방 제3代 檢校이고, 제2代는 三島安一로 계승되었다. 杉山流는 임진왜란(1592-1596)무렵에 발생했던 入江流로부터 갈라져 나온 鍼灸流派로서, 『耆婆五藏經』(1冊), 『五体身分集』(全3卷) 등의 관련 서적이 있다. 入江流는, 豊臣秀吉(1537-1598)의 醫官이었던 岡田道保(생몰연대 미상)와 임진왜란의 제1차 출병에서 포로가 되었던 明나라의 呉林達(생몰연대 미상)이 日本에 가져온 鍼術의 전승을 교토의 入江頼明(생몰연대 미상)이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고, 아들인 良明(생몰연대 미상)과 손자인 豊明(생몰연대 미상)으로 3代에 걸쳐서 계승되었다<sup>28)</sup>.

#### 4. 『鍼灸樞要』의 齊刺

이후 에도시대로 와서 鍼灸醫學에 대하여 가장 충실한 내용의 집의서가 바로 山本玄通(생몰연대 미상, 號는 適安, 宗孝로도 칭함)이 저술한 『鍼灸樞要』(全20권, 1676年)이다. 이 책의 「十二節刺」에서는 “齊는 三針을 가지런하게 쓰는 것이다. 한 개의 鍼을 써서 直刺로 가운데에 놓고, 다른 두 개의 침을 넣어서 그 양 옆에 끼워놓는다.”라고 되어 있다<sup>29)</sup>. 이 시대에는 『素問』과 『靈樞』를 입수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 齊刺는 三鍼을 가지런하게 해서 찌르는 것이라고 한 鍼灸의 刺法이 『杉山眞傳流』(1690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후 明나라의 徐大椿(1693-1771, 원래 이름은 大專, 字는 靈胎, 涇溪가 號)이 저술한 『醫學源流論』(2권, 1764年)에도 “十二節이라는 것은... 齊刺이다.”라고 하였는데<sup>30)</sup>, 『靈樞·官鍼』에는 “齊刺라는 것

은 直刺로 한 개의 침을 놓고, 옆에 두 개의 침을 놓아서 寒氣가 나타나는 부위가 작으면서 깊은 것을 치료한다. 혹은 三刺라고도 한다. 三刺라는 것은 痺氣가 작으면서 깊은 것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다<sup>31)</sup>. 이는 『鍼灸甲乙經』<sup>32)</sup>, 『鍼灸大成』<sup>33)</sup>, 『普濟方』<sup>34)</sup>, 『鍼灸問對』<sup>35)</sup>, 『類經』<sup>36)</sup> 등에도 보인다. 齊刺는 鍼의 12 종류 刺法 가운데 하나로 냉기나 통증이 심부에 있을 때 그 중심에 한 개의 침을 놓고, 곧바로 양측에 각각 한 개씩의 침을 일직선으로 나란히 刺鍼하는 방법이다. 즉 齊刺는 세 개의 침을 써서 刺鍼하는 법이므로 三刺라고 이해할 수 있다. 三刺에 대해서는 『靈樞·官鍼』에서 “소위 三刺라는 것은 穀氣가 나오는 것으로 먼저 淺刺하여 皮膚를 끊어서 陽邪를 나오게 한다.”라고 하였다<sup>37)</sup>. 『靈樞·終始』에서는 “무릇 刺法의 종류에는 三刺하여 穀氣를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처음 찌르면 陽邪가 나오고, 다시 찌르면 陰邪가 나오며, 세 번째로 찌르

傍刺贊刺, 以上二十一法, 視病所宜不可.

28) 吉田和裕. 日本における鍼灸の歴史—室町から江戸期にかけての受容と発展について. 社會鍼灸學研究. 2011. 5. P.38-39.  
29) 山本玄通. 鍼灸樞要. 京都大学貴重資料デジタルアーカイブ 2017 [cited 2018 20 July]; Available from: <https://rmda.kulib.kyoto-u.ac.jp/item/rb00003442#?c=0&m=0&s=0&cv=186&r=0&xywh=-3025%2C708%2C10431%2C2270> : 「十二節刺」齊者, 三針齊用也. 以一針直入其中, 二針挾入其傍.  
30) 徐大椿. 醫學源流論(欽定四庫全書醫家類53). 서울. 1995. 大星文化社. p.678. : 「鍼灸失傳論」內經刺法有九變十二節, 九變者, 輪刺遠道刺經刺絡刺刺大寫刺毛刺巨刺燔刺, 十二節者, 偶刺報刺板刺齊刺楊刺直針刺輪刺短刺浮刺陰刺

3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2. : 「官鍼」四曰齊刺. 齊刺者, 直入一, 傍入二, 以治寒氣小深者, 或曰三刺. 三刺者, 治痺氣小深者也.  
32) 皇甫謐. 鍼灸甲乙經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931. : 「九鍼九變十二節五刺五邪」四曰齊刺. 齊刺者, 直入一, 傍入二, 以治寒熱氣小深者, 或曰參刺. 參刺者, 治痺氣小深者也.  
33) 楊繼洲. 鍼灸大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9. p.27. : 「十二刺應十二經論」四曰齊刺者, 直入一, 傍入二, 以治寒熱氣小深者.  
34) 朱橧. 普濟方.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8 20 July];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res=803933&searchu=%E5%9B%9B%E6%9B%B0%E5%90%88> : 「鍼灸門刺節論」四曰齊刺, 直入一, 傍入二, 以治寒氣小深者, 或曰三刺, 治痺氣小深者也.  
35) 汪機. 鍼灸問對(欽定四庫全書醫家類33). 서울. 1995. 大星文化社. p.54. : 「卷上」又曰春氣在毛, 夏氣在皮膚, 秋氣在分肉, 冬氣在筋骨. 凡刺病者, 各以其時為齊, 故刺肥人, 以秋冬之齊, 刺瘦人以春夏之齊.  
36) 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291. : 「九變十二節」四曰齊刺. 齊刺者, 直入一, 傍入二, 以治寒氣小深者, 或曰三刺. 三刺者, 治痺氣小深者也. 舉齊者, 三鍼齊用也. 故又曰三刺, 以一鍼直入其中, 二鍼夾入其傍, 治寒痺稍深之法也.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3. : 「官鍼」所謂三刺則穀氣出者, 先淺刺絕皮, 以出陽邪.

면 穀氣가 이른다.”라고 하였다<sup>38</sup>). 이 경우의 三刺는 皮膚, 肌肉, 分肉에 각각 刺鍼하는 깊이가 다른 것을 말한다. 즉 三刺는 세 개의 침을 찌르는 것과 그 이외에 刺鍼의 깊이를 달리하는 것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後者가 아닌 前者를 다루고 있다.

## 5. 朝鮮 鍼術의 영향

한편 일본에서는 木村元貞(생몰연대 미상)이 編著한 鍼灸書인 『鍼灸極秘傳』(分卷하지 않은 1冊, 1780年)의 「別傳」에는 “水分, 中脘, 下脘, 氣海, 關元, 鳩尾 등 右腹部 6개의 혈자리에 別傳이 있어서 鷄足の 傳이라 일컫는다. 우선 1촌을 찔렀다가 5분을 뽑아 올려서 5분을 남겨두고, 그보다 위로 향하여 1寸 정도를 비틀고, 또한 뽑아서 남겨두었다가 왼쪽으로 향하여 1寸 정도를 비틀고, 또한 뽑아서 남겨두었다가 오른쪽으로 향하여 1寸 정도를 비틀고, 또한 뽑아서 남겨두었다가 똑바로 直刺한 후 뽑으니, 이것을 鷄足이라 한다.”라고 하였다<sup>39</sup>). 鍼은 한 개를 사용하며 깊이는 1寸5分이고, 대상이 되는 經穴의 여섯 혈자리는 모두 任脈 상에 위치한다. 거기에는 小腸의 募穴인 關元和 胃의 募穴인 中脘이 있는데, 이들은 六腑에 응하여 진단이나 치료에 이용되는 經穴이다. 이 책의 서문에는 永田徳本(1513-1630, 號는 知足齋, 乾室)이 조선 醫官 金徳邦(생몰년 미상)으로부터 전수받은 鍼灸術을 전승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金徳邦은 정유재란 즈음에 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려오게 되었다. 金徳邦은 明나라의 雲海士에게 師事하여 일본에서는 雲海士流의 침구유과가 일어났으며, 『針法藏心卷』(長生庵了味編, 1冊, 1611年), 『広狭神俱集』(저자 미상, 玄徳老人撰,

写本 1冊, 1612年), 『理穴集』(저자 미상, 玄徳老人撰, 写本1冊, 1613年)등의 저서가 있다<sup>40</sup>). 이 유과는 정유재란(1596-1615)때 일어났던 것들 중 하나이다.

에도시대를 맞이하자 임진왜란으로 중단되었던, 무로마치 시대부터 시작된 조선통신사 교류를 재개하게 된다. 이러한 일본과 한국의 의학 교류 속에서 1711년의 제8차 朝鮮通信使가 일본을 방문한 즈음에 주고받은 醫事問答 중에는 『鷄林唱和集』(1711年), 『兩東唱和後録』(1712年), 『桑韓醫談』(1713年) 등이 있는데, 교토의 鍼醫인 村上溪南(생몰연대 미상, 號는 樵齋)와 지식인 周南(생몰연대 미상, 得應齋가 號)이 朝鮮醫官 奇斗文(생몰연대 미상, 號는 嘗百軒)과 문답한 것을 漢城으로부터 에도로 가는 도중인 京都의 西本願寺에서 기록한 것이 『兩東唱和後録』이다<sup>41</sup>). 그 村上家가 鍼灸를 업으로 하는 집안으로 雲海士流의 系統이어서 問答 내용은 주로 鍼術에 관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奇斗文이 준비하였던 李栴(생몰연대 미상, 字는 文淸, 健齋가 號)이 지은 『醫學入門』(全9권, 1575年), 陳會(생몰연대 미상, 字는 善同, 宏綱이 號)가 짓고 劉瑾(생몰연대 미상)이 교정하여 보완한 『神應經』(1卷, 1425年) 등이 보인다<sup>42</sup>). 鍼醫인 溪南은 別穴에 관심을 보이며 필사를 하였다. 別穴은 『東醫寶鑑鍼灸篇』에 기록되어 있지만 別穴의 數 등에 의하여 보면 『鍼灸經驗方』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sup>43</sup>). 『鍼灸經驗方』은 日本에 感化를 주어서 1725년에 간행되었고 1778년에 再販되었으며, 『東醫寶鑑』도 1724년에 교토에서 출판되어 오사카에서는 1799년과 1828년에 再販되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조선 의서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72. : 「終始」凡刺之屬, 三刺至穀氣... 故一刺則陽邪出, 再刺則陰邪出, 三刺則穀氣至.

39) 木村元貞. 鍼灸極秘傳.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2011 [cited 2018 20 July]; Available from: <http://dl.ndl.go.jp/info:ndljp/pid/2536957> : 「別傳」水分, 中脘, 下脘, 氣海, 關元, 鳩尾, 右腹部六穴ニ別傳アリ, 鷄足ノ傳ト云, 先一寸刺シテ五分拔上テ五分ハ拔殘シテ, 夫ヨリ上エ向テ一寸許リヒ子リ, 又拔殘シテ左エ向テ一寸許リヒ子リテ, 亦拔殘シテ右エ向テ一寸許ヒ子リテ, 亦拔殘テ正直(マスク)ニ刺テ拔, 此ヲ鷄足ト云.

40) 吉田和裕. 日本における鍼灸の歴史—室町から江戸期にかけての受容と発展について. 社會鍼灸學研究. 2011. 5. P.37-38.

41) Yoshida K. Study of Byulhyul and the Book presented by DuMun Ki in Ryōtō Shōwa Goroku. Toho J. Med. 2015. 1(4). p.92-93.

42) 吉田和裕. 日本における鍼灸の歴史—室町から江戸期にかけての受容と発展について. 社會鍼灸學研究. 2011. 5. P.43-44.

43) Yoshida K. Study of Byulhyul and the Book presented by DuMun Ki in Ryōtō Shōwa Goroku. Toho J. Med. 2015. 1(4). p.93-96.

는데, 특히 『東醫寶鑑』의 영향력이 컸다고 생각된다. 『東醫寶鑑』에는 齊刺에 대한 기재가 없으나, 일본에서는 『鍼灸樞要』에서 “刺法에 다섯 가지가 있어서 五臟에 응한다.”라고 하고 “合谷刺는 서너 개가 모여 합해진 것이 마치 雞足과 같다는 말이 있다. 邪氣가 分肉 사이에 있어 그 기운이 넓고 크면 합하여 찌르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鷄足이란 것은 찌를 때에 鷄足の 방법이 있으니, 서너 개의 침을 모아서 마치 닭의 발을 드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sup>44)</sup>. 이 合谷刺는 세 번(直刺하고 좌우로 비스듬하게 찌름)이나 네 번(直刺하고 半分을 뽑으며, 앞에 놓고 또한 좌우에 놓음)을 찌르는 것을 鷄足이라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중국 침술의 合谷刺로부터 조선 침술의 鷄足鍼法으로 전해지고 이것이 일본 침술의 鷄足の 傳까지 전해졌으며, 중국 침술의 齊刺로부터 일본 침술의 三法主治로 전해졌지만, 아마도 合谷刺(鷄足鍼)의 刺法을 三法手術의 部라 하며, 秘法으로는 三法鍼의 法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추론한다. 다시 말하면 이 鍼法을 쓰는 방법은, 部位가 脾이고 鍼刺의 깊이가 分肉과 皮膚 사이이며 共通의 혈자리로 任脈의 中脘(胃의 募穴)에 사용하며, 刺入하는 방법은 한 개의 침을 써서 방향을 바꾸는 手技를 사용한다. 또한 이에 사용된 鍼은 고대 九鍼의 하나인 毫鍼(3寸6分)이라 생각 된다<sup>4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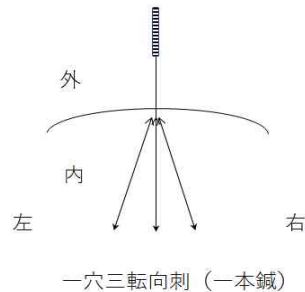
### III. 考察

鷄足鍼法은 『東醫寶鑑·鍼灸篇』에 나오는데 『靈樞官鍼』의 合谷刺에 해당한다. 그러나 『東醫寶鑑』에서 굳이 『靈樞衛氣失常』에 따라 명칭을 붙였고 그 手

技를 『醫學綱目』으로부터 활용한 것으로 보아, 朝鮮 鍼灸의 刺法이라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것은 일본에서 『鍼灸極秘傳』에 실린 ‘鷄足の 傳’으로 계승되었다. 合谷刺는 五刺法의 하나로 肌痺의 치료에 쓰이는데, 刺法은 환부의 국소 중앙에 直刺하고 皮部까지 다시 끌어올린 후 좌우의 양측에서 바깥쪽을 향하여 斜刺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혈자리에

Fig 1. The Acupuncture Technique of Hapgokja and Gyejok in China and Joseon

#### 合谷刺 (中国) · 鷄足鍼法 (朝鮮)



대하여 한 개의 本鍼을 쓰면서 三轉向하여 刺鍼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중국의 침술인 『靈樞官鍼』의 合谷刺와 조선의 침술인 『東醫寶鑑·鍼灸篇』의 鷄足鍼法은, 이른바 ‘一本三轉向刺’라고 말할 수 있는 刺法인데 [Fig. 1], 『鍼灸樞要』(1676년)에서는 다섯 가지 刺法이 五臟에 응하는 가운데 合谷刺는 곧장 찌르고 나서 좌우로 비스듬하게 찌르는 것이며 닭의 세 발톱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鍼法은 일본 침술의 『鍼灸極秘傳』 「別傳」의 ‘鷄足の 傳’에서는 ‘一本四轉向刺’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鍼灸樞要』에 나오는 合谷刺는 곧장 찌르고 半分 정도 뽑아 올린 후, 앞쪽에 놓고 좌우에 놓는 방식으로 보인다 [Fig 2]. 원래 鷄足은 앞발 3개, 뒷발 1개로 되어 있어 총 4개로 발톱이 4개가 있기 때문에 고안해낸 刺法이라 생각된다. 실제 手技는 精微하고 高度의 기술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4) 山本玄通. 鍼灸樞要. 京都大学貴重資料デジタルアーカイブ 2017 [cited 2018 20 July]; Available from: <https://rmda.kulib.kyoto-u.ac.jp/item/rb00003442#?c=0&m=0&s=0&cv=187&r=0&xywh=-6468%2C-29%2C18951%2C4073> : 「刺有五以應五藏」 合谷刺者, 言三四攢合如鷄足也. 邪在肉間, 其氣廣大, 非合刺不可也. 鷄足者, 刺有鷄足之法, 攢三四針, 猶舉鷄足貌也.

4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1. : 「九鍼十二原」 七曰毫鍼, 長三寸六分.

Fig 2. The Acupuncture Technique of Gyejok Transmission in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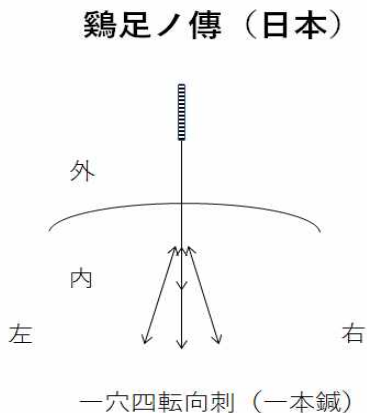


Fig 3. The Acupuncture Technique of Jeja and Three-principle in China and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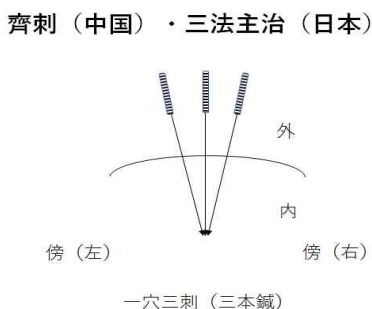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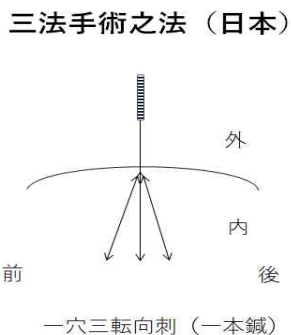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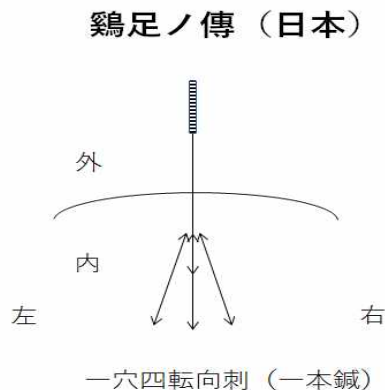
Fig 4. Three-principle hand Technique in Japan



한편 『靈樞官鍼』에 나오는 齊刺(三刺)는 十二刺法의 일종으로 部位가 비교적 작고 깊이 있는 寒氣에 대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다. 刺法은 환부 중앙에

한 개의 鍼을 찌르고 양측에 두 개의 鍼을 찌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의 혈자리에 대해서 세 개의 침을 사용하여 刺鍼하는 것으로 『鍼灸樞要』의 十二節刺에서 三鍼을 쓰는 刺法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본의 『杉山眞傳流』에서도 手術의 部 가운데 「三法主治」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Fig 3]. 그러나 같은 책 手術의 部 가운데 ‘三法手術의 法’과 十八術의 口傳 가운데 ‘三法鍼의 傳’을 살펴보면, 그 刺法이 鷄足の 一本三轉向刺와 거의 유사하다[Fig 4].

Fig 5. The Acupuncture Technique of Gyejok Transmission in Japan



一本三轉向刺의 手技는 미세하면서도 고도의 기량이 요구된다. 즉 이들 鷄足鍼法은 중국 의서의 合谷刺(1本鍼)를 조선 시대에 東醫가 확립되면서 정착된 것으로 보이며, 일본에서는 『鍼灸極秘傳』 「別傳」에서 말한 ‘鷄足の 傳’(1本鍼)으로 이어졌다[Fig 5]. 『杉山眞傳流』의 ‘三法鍼의 傳’(1本鍼)은 合谷刺(鷄足)를 반영하고 있지만, ‘三法手術의 法’(1本鍼)에서는 直刺한 후에 左右가 아니라 前後에 刺法을 시행하여 결국 三鍼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鷄足鍼法과 유사하다. 三法에 대해서는 중국 刺法의 齊刺(三本鍼)가 鍼 하나를 直刺하고 옆에 鍼을 각각 한 개씩 찌르는 三刺法이 「三法主治」로 전승되었다. 그 手技가 서로 매우 유사하고 主治도 痺를 대상으로 한다[Fig 3]. 合谷刺가 鷄足(爪)의 『鍼灸樞要』와 『鍼灸極秘傳』의 「別傳」으로, 齊刺(三刺)가 『杉山眞傳流』의 三法과 口傳으로 각각의 유파에 의한 鍼法이 되었지만, 모두 朝鮮 系統의 鍼法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계족의 침술이 동아시아에서 전파된 흐름을 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Fig 6, Appendix Table 1].

Fig 6. The Changes in East Asia of the Acupuncture Technique of Gyejok in Modern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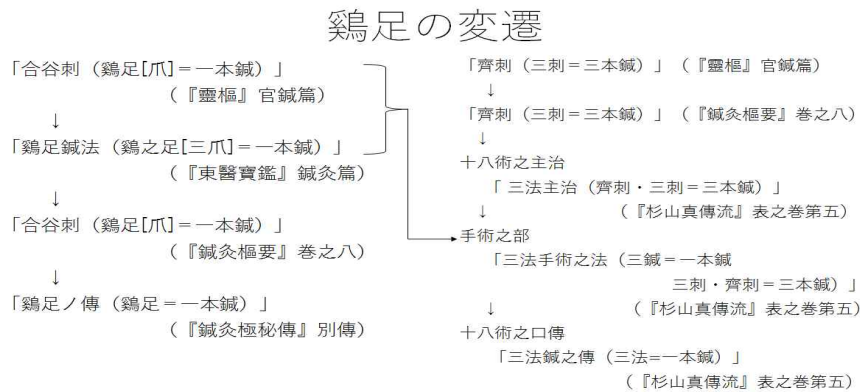


Table 1. The Categorization of The Acupuncture Technique of Gyejok in East Asia

分類	刺法	手技	深淺	主治	部位	經穴	別稱	出典
五刺	合谷刺	左右鷄足	分肉之間	肌痺	脾之應		鷄足(爪)	『靈樞』官鍼篇
鍼灸	鷄足鍼法	正入一鍼、左右斜入二鍼		病重			鷄之足(三爪)	『東醫寶鑑』鍼灸篇
刺有五以應五臟	合谷刺	左右鷄足	分肉之間	肌痺	脾之應		鷄足(爪)	『鍼灸樞要』卷之八
別傳	鷄足ノ傳	先一寸刺五分抜き上テ五分ハ抜殘シテ、夫ヨリ上エ向テ一寸許リヒ子リ、又抜殘シテ左エ向テ一寸許リヒ子リテ、亦抜殘シテ右エ向テ一寸許ヒ子リテ亦抜殘テ正直ニ刺テ抜				水分・中腕・下腕・氣海・關元・鳩尾	鷄足	『鍼灸極秘傳』
十二節刺	齊刺	刺直入一、傍入二		寒氣小深			(三刺)	『靈樞』官鍼篇
	三刺			痺氣小深				『靈樞』官鍼篇
十二節刺	齊刺	刺直入一、傍入二		寒氣小深			三刺	『鍼灸樞要』卷之八
手術之部	三法手術之法	直入其鍼、引退皮部、一刺前、一刺後	淺深可隨宜				三鍼	『杉山真傳流』表之卷第五
	齊刺	直入一、傍入二					三刺	
十八術之主治	三法主治	以一鍼、三刺齊		寒氣小深/寒熱			齊刺 三刺	『杉山真傳流』表之卷第五
	三刺	每一鍼与法	痛在皮膚間	寒氣入經謂ウ痺之意	痛在傍者皆取之		三法	
十八術口傳書	三法鍼之傳	假令ハ中腕ノ穴ニ刺シ、暫ク氣ヲ離シ、其ノ針ヲ皮ノ部エ引キ退ケ、穗先ヲ先左ノ梁門エ向ケテ刺シ、暫ク針ヲ撚リ、其鍼ヲ皮ノ部ニ退ケ、右ノ梁門エ向ケテ刺シ、前ノ法ノ如ク行テ針ヲ去ル也				中腕・梁門	口傳	『杉山真傳流』表之卷第五

#### IV. 結論

朝鮮의 『東醫寶鑑·鍼灸篇』에 鷄足鍼法이 처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비하여 齊刺(三刺)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東醫寶鑑』의 鷄足鍼法은 중국 漢代의 『靈樞』, 明代의 『醫學綱目』을 인용하고 있는데, 조선에서는 중국의학과 한반도의 의학을 융합시켜 독자적인 의학을 성립시켰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이 刺法을 확립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鷄足은 『靈樞·衛氣失常』과 『靈樞·官鍼』에 나오며 合谷刺에 해당하고 齊刺는 『靈樞·官鍼』에 나온다. 즉 合谷刺는 鷄足이며 齊刺는 三刺로서 각각 手技는 다르지만 古代의 刺法으로서 『靈樞·官鍼』에 기재되어 있다.

日本에서는 合谷刺(鷄足)와 齊刺(三刺)가 『鍼灸樞要』에 열거되고는 있으나, 朝鮮 系統의 『鍼灸極秘傳』 「別傳」에 '鷄足の傳'이 보이고 朝鮮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또한 入江流의 系統인 杉山流의 비결서인 『杉山眞傳流』 「表의 卷第五」 手術의 部 가운데 '三法手術의 法', 十八術 口傳書 가운데 '三法鍼의 傳' 등에서 유사한 刺法이 나온다. 이 鍼灸流派는 日本醫術과 中國醫學의 여파를 받았다고 생각되며 이에 朝鮮醫學이 영향을 미친 것을 알게 되었다. 즉 鷄足은 지속적으로 日本의 鍼術이나 流派에 반영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 References

1. Gao W. Zhenjiujuying. Shanghai. Shanghai Scientific & Technical Publisher. 1961.  
高武. 鍼灸聚英.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1.
2. Heo J. Donguibogam. Seoul. Beopmunhwasa. 2017.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7.
3. Hong WS. Jeonggyohwangjenaegyeongsomun.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4. Hong WS. Jeonggyohwangjenaegyeongyeongchu.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5. Huang FM. Zhenjiujiayingjiaozhu(上).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 1996.  
皇甫謐. 鍼灸甲乙經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6. Huang FM. Zhenjiujiayingjiaozhu(下).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 1996.  
皇甫謐. 鍼灸甲乙經校注(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7. Lou Y. Yixuegangmu.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6.  
樓英. 醫學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8. Sugiyama KG. Sugiyamasindenryu. Tokyo. Sugiyamakengyoutokukensyokai. 2004.  
杉山檢校. 杉山眞傳流. 東京. 杉山檢校遺德顯彰會. 2004.
9. Wang J. Zhenjiuwendui(Qindingsikuquanshuyijialei 33).. Seoul. 1995. Daeseongmunhwasa.  
汪機. 鍼灸問對(欽定四庫全書醫家類 33). 서울. 1995. 大星文化社.
10. Wu K. Zhenfangliujijiaoshi. Seoul. Uiseongdang. 1993.  
吳昆. 鍼方六集校釋. 서울. 醫聖堂. 1993.
11. Xu DC. Yixueyuanliulun(Qindingsikuquanshuyijialei 53). Seoul. 1995. Daeseongmunhwasa.  
徐大椿. 醫學源流論(欽定四庫全書醫家類 53). 서울. 1995. 大星文化社.
12. Yang JS. Zhenjiuxue.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 1995.  
楊甲三. 鍼灸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13. Yang JZ. Zhenjiudacheng.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

1959.  
楊繼洲. 鍼灸大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9.
14. Zhang CZ. Rumenshiqinjiaozhu. Henan.  
Henan Science Technology Publishing  
House. 1984.  
張從正. 儒門事親校註. 河南. 河南科學技術出  
版社. 1984.
15. Zhang JB. Leijing.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7.  
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16. Zhu S. Pujifang.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 1959.  
朱橚. 普濟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9.
17. Yoshida K. History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Japan - About the  
Developments and acceptance of  
Muromachi during the Edo period. J. Social  
Scienc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2011. 5.  
吉田和裕. 日本における鍼灸の歴史-室町から  
江戸期にかけての受容と発展について. 社會鍼  
灸學研究. 2011. 5.
18. Yoshida K. Philological and Historical  
Research on Dong Eui Bo Gam at the  
Nanji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J.Med.Soc.Toho. 2012. 59(2).
19. Yoshida K. Study of Byulhyul and the  
Book presented by DuMun Ki in Ryōtō  
Shōwa Goroku. Toho J. Med. 2015. 1(4).
20. Kimura MS. Sinkyugokuhiden. National  
Diet Library Digital Collection 2011 [cited  
2018 20 July]; Available from:  
<http://dl.ndl.go.jp/info:ndljp/pid/2536957>  
木村元貞. 鍼灸極秘傳. 国立国会図書館デジ  
タルコレクション 2011 [cited 2018 20 July];  
Available from:  
<http://dl.ndl.go.jp/info:ndljp/pid/2536957>
21. Yamamoto GT. Sinkyousuyo. Kyoto  
University Rare Materials Digital Archive  
2017 [cited 2018 20 July]; Available from:  
<https://rmda.kulib.kyoto-u.ac.jp/item/rb00003442#?c=0&m=0&s=0&cv=186&r=0&xywh=-3025%2C708%2C10431%2C2270>  
山本玄通. 鍼灸樞要. 京都大学貴重資料デジ  
タルアーカイブ 2017 [cited 2018 20 July];  
Available from:  
<https://rmda.kulib.kyoto-u.ac.jp/item/rb00003442#?c=0&m=0&s=0&cv=186&r=0&xywh=-3025%2C708%2C10431%2C2270>
22. Zhu S. Pujifang. Chinese Text Project  
2006 [cited 2018 20 July];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res=803933&searchu=%E5%9B%9B%E6%9B%B0%E5%90%88>  
朱橚. 普濟方.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8 20 July];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res=803933&searchu=%E5%9B%9B%E6%9B%B0%E5%90%88>